



충청북도 1인가구 202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The logo for the Chungbuk Integrated Social Welfare Center consists of a stylized green and blue graphic resembling a wave or a leaf, with a small red dot above it.

목 차

□ 2020 충청북도 1인가구

I. 1인 가구 비중과 추이	1
1. 1인 가구	2
2. 연령대 및 성별 1인가구	5
3. 고령자 가구 규모	8
4. 1인 가구 변화 추이	10
II. 고령 1인 가구 특징	12
1. 충청북도 시군 독거노인인구 현황	13
2. 충청북도 독거노인의 경제 수준 현황	14
3. 충청북도 고령 1인 가구 주거형태	15
4. 충청북도 국민연금수급 현황	16
5. 충청북도 노인 고충문제	17

제1장

1인 가구 비중과 추이

1인 가구

1인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통계청(2015)
* 「건강가정기본법」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 로 정의함1)

□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전국 1인 가구의 경우 2015년 기준 520만 3천 가구에서 2018년 584만 8천 가구로 12.4% 증가하였음. 2019년 일반 가구는 1,997만 1천 가구이며, 그 중 1인 가구는 590만 7천 가구로 29.6%를 차지하고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여성 1인 가구는 291만 4천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중 49.3%임.

[그림1] 전국 1인 가구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보다 많았으나, 2018년부터는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많아졌음.

[표1] 전국 1인 가구

(단위: 천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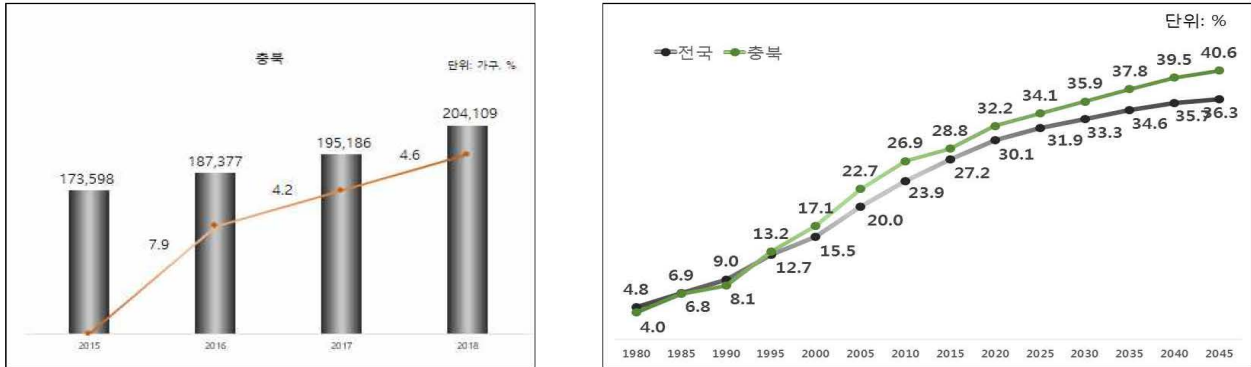
	총 1인 가구	여 성	구 성 비	남 성	구 성 비	구 성 비 차 이 (여-남)
2015	5,203	2,610	50.2	2,593	49.8	0.4
2016	5,398	2,722	50.4	2,676	49.6	0.8
2017	5,619	2,827	50.3	2,792	49.7	0.6
2018	5,739	2,843	49.5	2,896	50.5	-1.0
2019	5,907	2,914	49.3	2,994	50.7	-1.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018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2017. 4.

1) 2012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2018년 1월 16일 '1인 가구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근거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1인 가구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의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 수립시 1인 가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2항 '가정'의 정의에 새롭게 2항2를 신설해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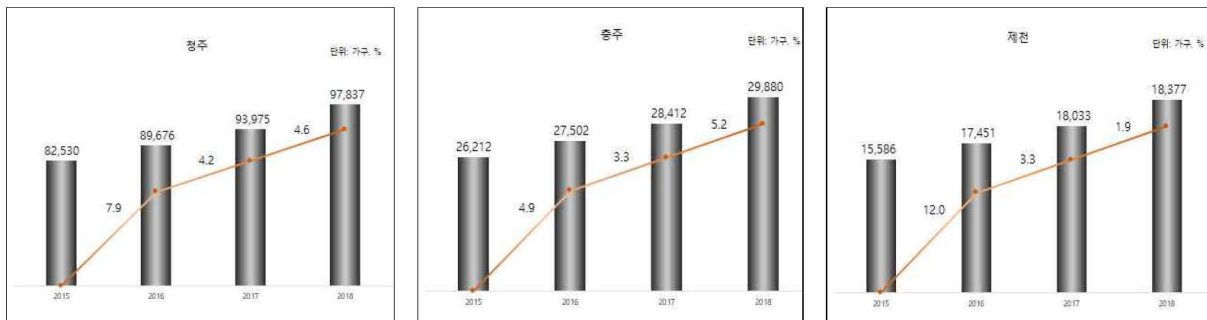
□ 충청북도 1인 가구의 경우 2015년 기준 17만 3천가구 에서 2018년 20만 4천 가구로 17.6%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의 1인 가구 증가율을 보면, 전국 1인 가구 증가율 12.4% 보다 충청북도는 5.2% 높은 17.6%의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음.

[그림2] 충청북도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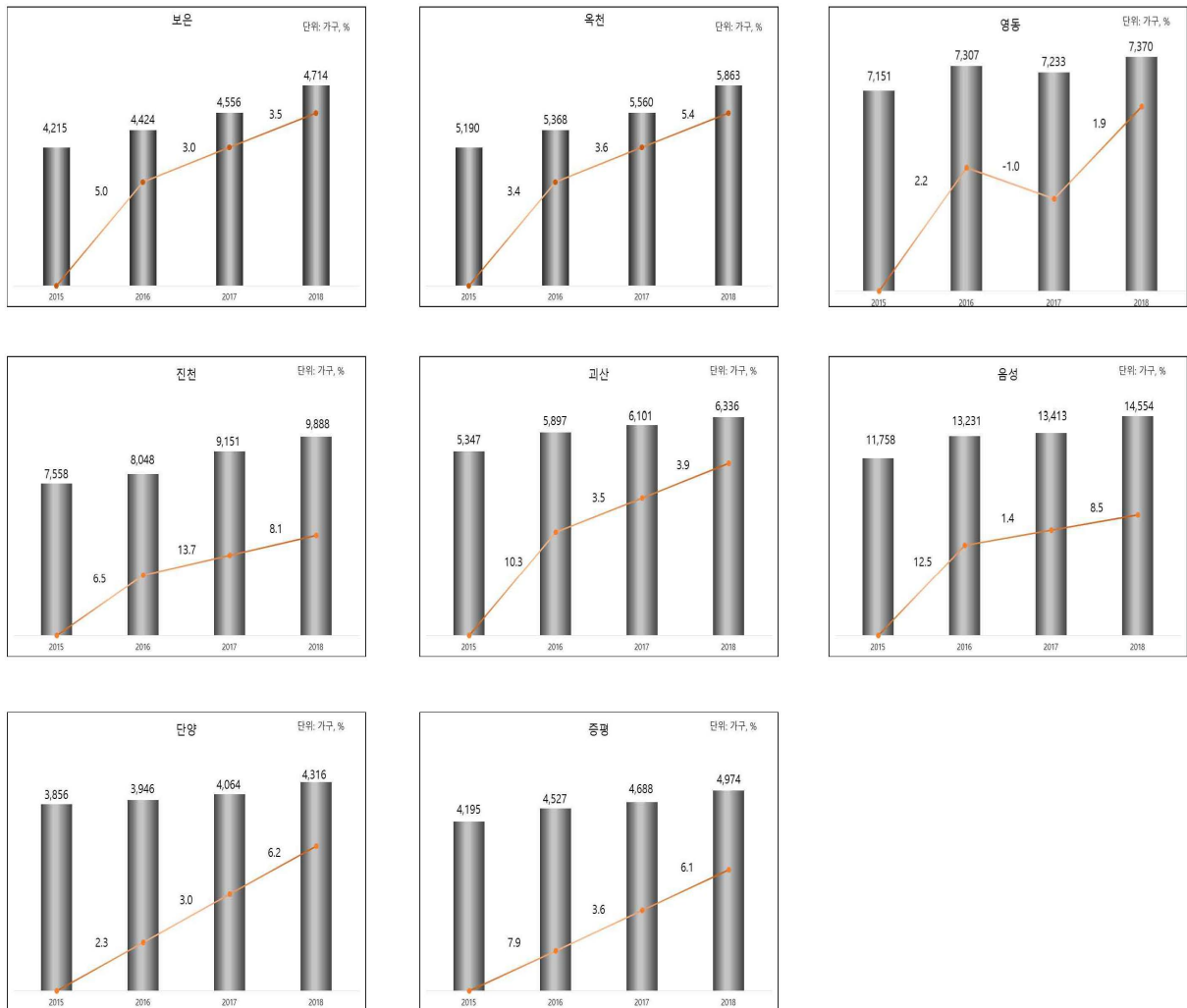
○ 충청북도 3개 시(市)의 1인 가구 수를 살펴보면, 청주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5년 8만 2천 가구에서 2018년 9만 7천 가구로 18.5% 증가하였고, 충주시는 2015년 2만 6천 가구에서 2018년 2만 9천 가구(14.0%), 제천시 2015년 1만 5천 가구에서 2018년 1만 8천 가구(17.9%)가 증가 하였음.

[그림3] 충청북도 3개 시(市) 1인 가구 수(2015~2018)



- 충청북도 8개 군(郡)의 1인 가구 수를 살펴보면, 보은군은 1인 가구가 2015년 4천 2백가구에서 2018년 4천 7백가구로 11.8% 증가하였고, 옥천군은 2015년 5천 1백 가구에서 2018년 5천 8백 가구(13.0%), 영동군은 2015년 7천 1백 가구에서 2018년 7천 3백 가구(3.1%), 진천군은 2015년 7천 5백 가구에서 2018년 9천 8백 가구(30.8%)로 증가함. 괴산군은 2015년 5천 3백 가구에서 2018년 6천 3백 가구(18.5%)로 증가하였고, 음성군은 2015년 1만 1천 가구에서 2018년 1만 4천 가구(23.8%), 단양군은 2015년 3천 8백 가구에서 2018년 4천 3백 가구(11.9%), 증평군은 2015년 4천 1백 가구에서 2018년 4천 9백 가구(18.6%)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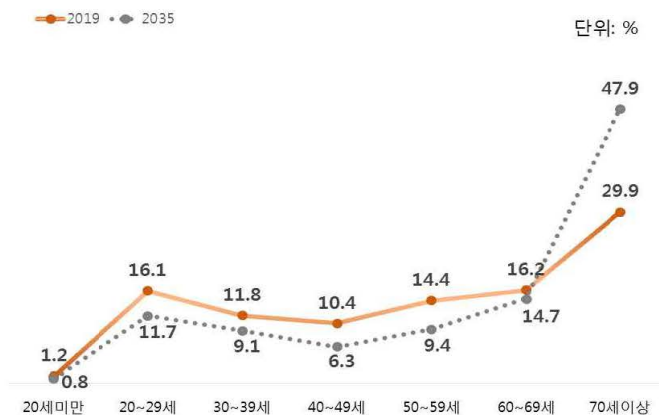
[그림4] 충청북도 8개 군(郡) 1인 가구 수 (2015~2018)



2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

-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 구성비 현황을 보면 여성 1인 가구는 2019년 70세 이상(29.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대(16.2%), 20대(16.1%) 순으로 나타남. 이를 고려한 치매 등 노인돌봄정책의 발굴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음.
- 2019년 이후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는 50대까지는 감소 추세이며, 70세 이상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35년에는 70세 이상 47.9%, 30대와 50대는 9%, 40대는 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5] 전국 연령대 성별 1인 가구 구성비(2019, 2035)



[표2] 전국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 구성비(2005~2035)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	연령대별 1인 가구 구성비								
		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여성	2005	1,753	100.0	1.2	18.1	12.5	11.7	11.5	18.5	26.5
	2010	2,218	100.0	1.1	16.0	12.7	11.1	13.4	16.2	29.4
	2015	2,610	100.0	1.1	15.4	13.1	11.8	15.3	15.6	27.6
	2017	2,827	100.0	1.1	15.7	12.3	11.2	15.0	16.7	27.9
	2018	2,843	100.0	1.3	16.0	12.1	10.8	14.6	15.9	29.3
	2019	2,914	100.0	1.2	16.1	11.8	10.4	14.4	16.2	29.9
	2035	3,650	100.0	0.8	11.7	9.1	6.3	9.4	14.7	47.9
남성	2005	1,418	100.0	1.6	25.5	28.9	19.0	11.6	7.5	5.9
	2010	1,924	100.0	1.3	21.2	26.4	19.8	15.3	8.7	7.3
	2015	2,593	100.0	1.1	18.7	23.5	20.9	18.4	10.1	7.3
	2017	2,792	100.0	1.0	18.5	22.2	19.5	18.7	11.9	8.0
	2018	2,896	100.0	1.2	18.9	21.2	20.3	18.8	11.7	7.9
	2019	2,994	100.0	1.2	18.9	20.5	19.9	19.1	12.3	8.1
	2035	3,985	100.0	0.8	11.7	9.1	6.3	9.4	14.7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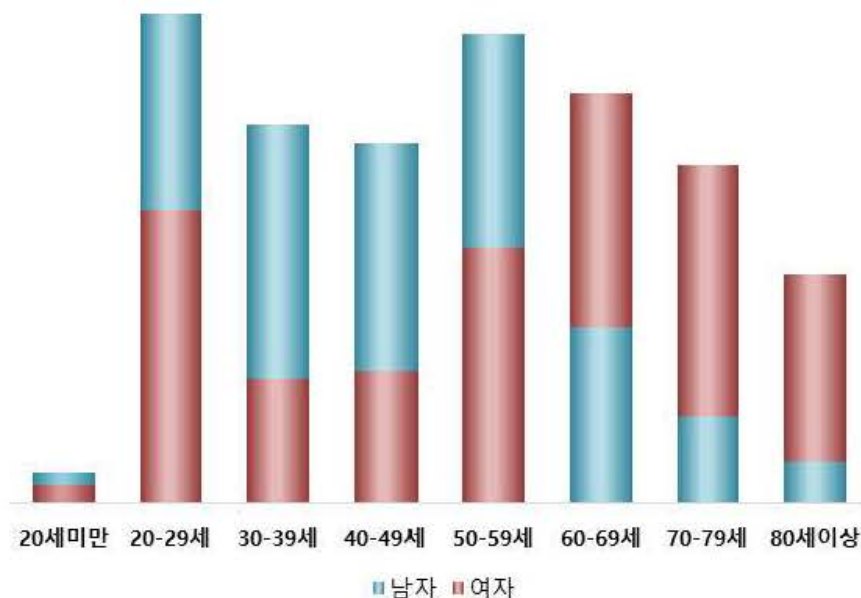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018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2017. 4.

□ 충청북도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 구성비를 보면 20~59세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60세 이상으로는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충청북도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의 경우 20세미만은 여성이 0.9%, 남성이 1.3%로 여성보다 0.4%로 높고, 20~29세는 여성이 14.6%, 남성이 21.6%로 여성보다 7.0% 높으며, 30~39세는 여성이 9.2%, 남성이 18.8%로 여성보다 9.6% 높게 나타남. 40~49세는 여성이 9.8%, 남성이 16.8%로 여성보다 7.0%로 높고, 50~59세는 여성이 15.8%, 남성이 18.9%로 여성보다 3.1% 높음.

○ 60~69세는 남성이 13.0%, 여성이 17.3%로 남성보다 4.3% 더 높고, 70~79세는 남성이 6.4%, 여성이 18.6%로 남성보다 12.2% 높게 나타남. 80세이상의 경우 남성이 3.1%, 여성이 13.8%로 남성보다 10.7% 높게 나타남.

[그림6] 충청북도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 구성비(2018)



[표3] 충청북도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 구성비(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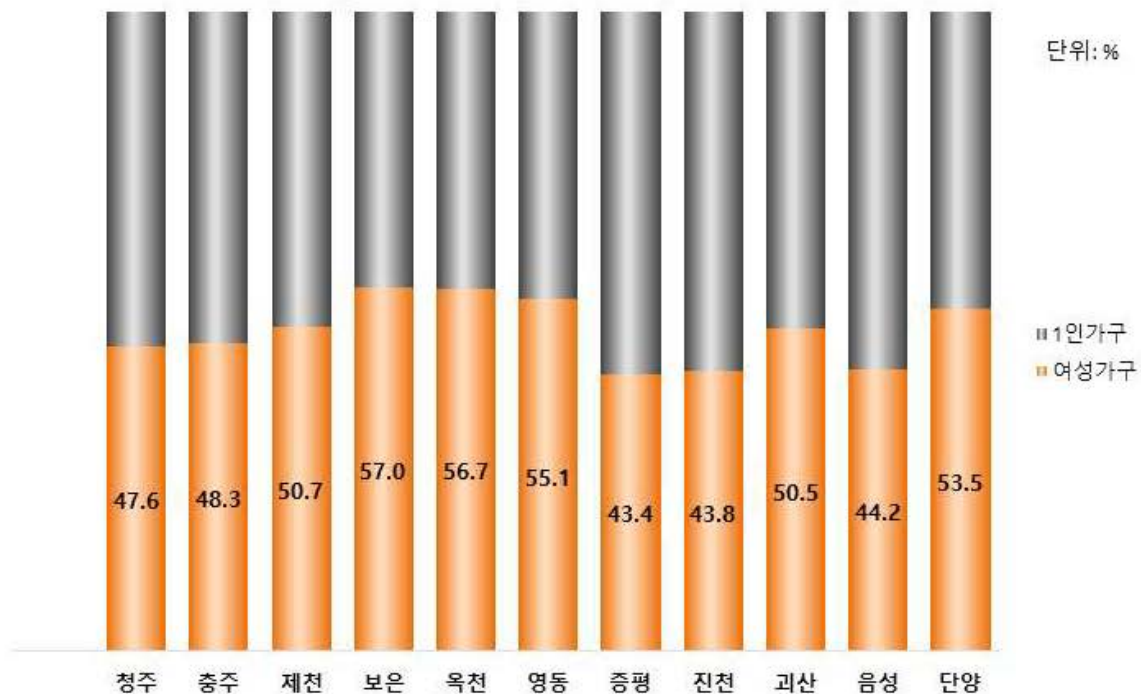
	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여성	100.0	0.9	14.6	9.2	9.8	15.8	17.3	18.6	13.8
남성	100.0	1.3	21.6	18.8	16.8	18.9	13.0	6.4	3.1

□ 충청북도의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204,109가구이며, 그 중 여성 가구는 98,782가구(48.4%)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 3개 시(市)지역 1인 가구 중 여성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청주시의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97,837가구이며, 여성 가구는 46,530가구(47.6%)를 차지하고 있고, 충주시는 2018년 기준 1인가구 29,880가구이며, 14,423가구(47.6%)를 차지하고 있음. 제천시의 경우 2018년 기준 1인 가구가 18,377가구이며, 여성 가구는 9,324가구(50.7%)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 8개 군(郡)지역 1인 가구 중 여성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보은군은 2018년 기준 1인 가구는 4,714가구이며, 여성 가구는 2,685가구(57.0%)를 차지하고 있음. 옥천군은 3,324가구 (56.7%), 영동군은 4,058가구(55.1%), 증평군은 2,160(43.4%), 진천군은 4,335가구(43.8%), 괴산군은 3,200가구(50.5%), 음성군은 6,432(44.2%), 단양군은 2,311가구(53.5%)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구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7] 충청북도 시군별 1인 가구 중 여성 가구 비율(2018)



[표4] 충청북도 시군별 1인 가구 중 여성 가구 비율(2018)

(단위: 가구, %)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인 가구	204,109	97,837	29,880	18,377	4,714	5,863	7,370	4,974	9,888	6,336	14,554	4,316
여성 가구	98,782	46,530	14,423	9,324	2,685	3,324	4,058	2,160	4,335	3,200	6,432	2,311
비율	48.4	47.6	48.3	50.7	57.0	56.7	55.1	43.4	43.8	50.5	44.2	53.5

자료: 통계청, 2019년 인구총조사

③ 고령자 가구 규모

□ 전국의 일반 가구가 2018년 기준 19,979만 1천 가구로 그 중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37만7천 가구 26.9%이며,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254만 가구 12.7%, 고령자 1인 가구는 144만 가구로 7.2%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일반가구가 2018년 기준 64만 9천 가구로 그 중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18만 4천 가구로 전국 평균 보다 1.9% 높은 28.8%임.

-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9만 4천 가구(14.8%), 고령자 1인 가구는 5만 4천 가구(8.5%)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 대비 고령자만 있는 가구 2.1%, 고령자 1인 가구는 1.3% 높게 나타남.

[표5] 시도별 고령자 가구 규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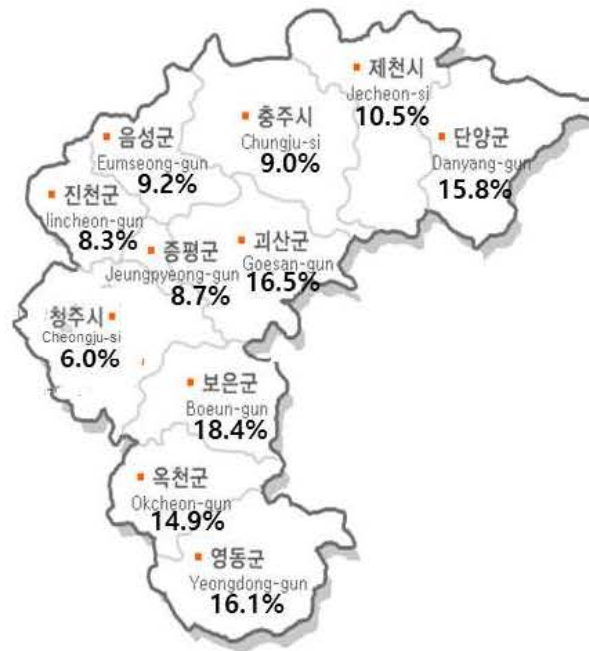
(단위: 가구, %)

시 도	일반가구	고령자가 있는 가구		고령자만 있는 가구		고령자 1인 가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국	19,979,188	5,377,821	26.9	2,545,493	12.7	1,444,588	7.2
서 울	3,839,766	975,298	25.4	412,202	10.7	220,988	5.8
부 산	1,363,608	416,464	30.5	200,788	14.7	116,589	8.6
대 구	957,516	258,575	27.0	126,373	13.2	71,359	7.5
인 천	1,094,749	259,999	23.7	110,067	10.1	63,031	5.8
광 주	578,559	134,956	23.3	65,043	11.2	36,782	6.4
대 전	602,175	133,620	22.2	62,944	10.5	34,946	5.8
울 산	431,391	89,486	20.7	39,684	9.2	22,582	5.2
세 종	119,029	20,337	17.1	8,525	7.2	4,544	3.8
경 기	4,751,497	1,091,630	23.0	457,165	9.6	245,480	5.2
강 원	628,484	204,311	32.5	105,458	16.8	61,599	9.8
충 북	640,978	184,302	28.8	94,952	14.8	54,792	8.5
충 남	851,124	258,866	30.4	135,377	15.9	75,698	8.9
전 북	732,980	250,472	34.2	135,201	18.4	80,084	10.9
전 남	737,406	286,721	38.9	162,652	22.1	99,832	13.5
경 북	1,094,534	371,341	33.9	205,422	18.8	121,493	11.1
경 남	1,306,394	375,015	28.7	194,392	14.9	118,767	9.1
제 주	248,998	66,428	26.7	29,248	11.7	16,022	6.4

자료: 통계청, 2019년 인구총조사

- 청주시는 일반가구가 2018년 기준 32만 5천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는 6.0%를 차지하고 있고, 충주시는 일반가구가 8만 8천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가 9.0%, 제천시는 일반가구가 5만6천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가 10.5%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 8개 군 지역 중 보은군은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천 5백가구 18.4%로 11개 시군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8] 시군별 고령자 가구규모(2018)



[표6] 시군별 고령자 가구규모(2018)

(단위: 가구, %)

시 도	일반가구	고령자가 있는 가구		고령자만 있는 가구		고령자 1인 가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청주	325,023	72,505	22.3	33,974	10.5	19,566	6.0
충주	88,711	27,003	30.4	14,073	15.9	7,995	9.0
제천	56,476	18,828	33.3	10,389	18.4	5,936	10.5
보은	14,080	7,358	52.3	4,307	30.6	2,585	18.4
옥천	20,362	9,550	46.9	5,306	26.1	3,025	14.9
영동	20,915	9,827	47.0	5,696	27.2	3,362	16.1
진천	31,023	8,759	28.2	4,502	14.5	2,582	8.3
괴산	16,765	8,241	49.2	4,819	28.7	2,774	16.5
음성	39,808	12,271	30.8	6,321	15.9	3,651	9.2
단양	12,684	5,807	45.8	3,384	26.7	1,998	15.8
증평	15,131	4,153	27.4	2,181	14.4	1,318	8.7

자료: 통계청, 2019년 인구총조사

④ 1인 가구 변화 추이

-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기준 29.3%로 2000년보다 13.8%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는 2018년 기준 31.8%로 2000년보다 14.7%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0.9%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표기] 연도 및 시도별 1인 가구 비율(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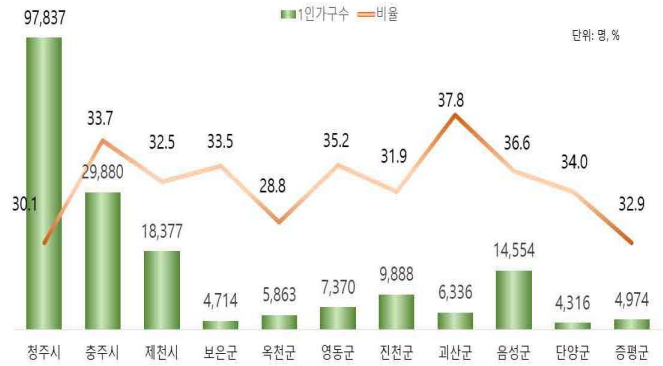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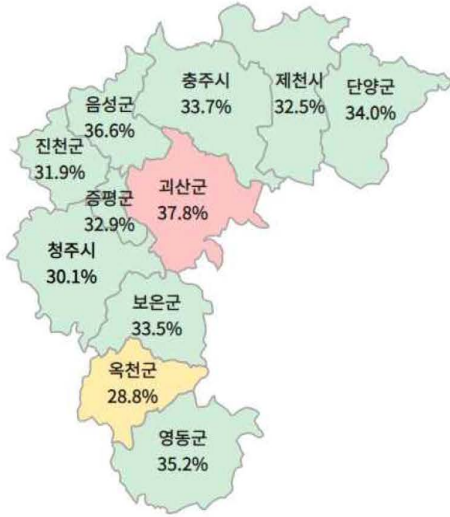
(단위 : %)

시 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A)	2018년 (B)	증감 (B-A)
전 국	15.5	20.0	23.9	27.2	27.9	28.6	29.3	0.7
서 울	16.3	20.4	24.4	29.5	30.1	31.0	32.0	1.0
부 산	13.8	18.8	23.4	27.1	27.7	28.7	29.7	1.0
대 구	14.2	18.2	22.2	25.8	26.4	27.4	28.2	0.8
인 천	13.0	17.2	20.8	23.3	23.9	24.7	25.2	0.5
광 주	14.7	19.0	23.7	28.8	29.0	29.8	30.2	0.4
대 전	15.2	20.6	25.3	29.1	30.4	31.5	32.5	1.0
울 산	13.9	17.1	20.7	24.5	24.6	25.1	25.6	0.5
세 종	-	-	-	29.1	30.6	30.2	30.0	-0.2
경 기	12.6	16.9	20.3	23.4	23.8	24.4	25.2	0.8
강 원	18.8	23.5	27.9	31.2	32.1	32.2	32.8	0.6
충 북	17.1	22.7	26.9	28.8	30.3	31.0	31.8	0.8
충 남	17.2	22.6	27.0	29.5	30.4	31.1	31.8	0.7
전 북	17.4	22.1	26.5	29.8	30.7	31.2	31.7	0.5
전 남	19.7	24.6	28.9	30.4	31.2	31.6	31.9	0.3
경 북	18.5	23.9	28.8	30.4	31.3	31.9	32.3	0.4
경 남	17.1	21.4	24.9	27.6	28.1	28.6	29.1	0.5
제 주	16.6	21.5	24.0	26.5	27.4	28.6	29.4	0.8

자료: 통계청, 2019년 e-지방지표

- 충청북도 시군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부터 2018년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3개시 지역을 살펴보면, 청주시 1인가구 비율이 2018년 기준 30.1%로 2000년 16.1%보다 14.0% 증가하였으며 충주시는 2018년 33.7%에서 2000년 17.9%보다 15.8%로 증가하였고, 제천시는 2018년 32.5%에서 2000년 17.9%보다 14.6%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충청북도 8개군 지역을 살펴보면, 보은군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기준 33.5%로 2000년 20.3%에서 13.2% 증가, 옥천군은 2018년 28.8%로 2000년 18.3%에서 10.5% 증가, 영동군은 2018년 35.2%로 2000년 19.5%에서 15.7% 증가, 진천군은 2018년 31.9%로 2000년 16.2%에서 15.7% 증가, 괴산군은 2018년 37.8%로 2000년 21.1% 16.7% 증가, 음성군은 36.6%로 2000년 16.0%에서 20.6% 증가, 단양군은 2018년 34.0%로 2000년 19.0%에서 15.0% 증가, 증평군은 2018년 32.9%로 2000년 12.2%에서 20.7% 증가함.

[그림9] 연도 및 시군별 1인 가구 비율(2018)



[표8] 연도 및 시군별 1인 가구 비율(2000~2018)

(단위: %)

시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A)	2018년 (B)	증감 (B-A)
청주시	16.1	23.1	26.6	27.0	28.5	29.4	30.1	0.7
청원군 ²⁾	16.2	21.0	26.0	-	-	-	-	-
충주시	17.9	22.5	27.9	31.4	32.3	32.9	33.7	0.8
제천시	17.9	22.5	26.8	29.1	31.5	32.2	32.5	0.3
보은군	20.3	25.4	30.4	30.9	32.1	32.7	33.5	0.8
옥천군	18.3	22.0	25.9	26.2	27.0	27.8	28.8	1.0
영동군	19.5	25.9	30.8	34.4	35.0	34.6	35.2	0.6
진천군	16.2	21.0	25.9	29.3	30.0	31.4	31.9	0.5
괴산군	21.1	25.3	29.9	34.3	36.4	36.8	37.8	1.0
음성군	16.0	20.0	24.9	31.9	34.2	34.6	36.6	2.0
단양군	19.0	23.8	28.1	31.6	32.1	32.8	34.0	1.2
증평군	12.2	19.9	26.0	29.9	31.1	31.4	32.9	1.5

자료: 통계청, 2019년 e-지방지표

2) 2014. 7. 1.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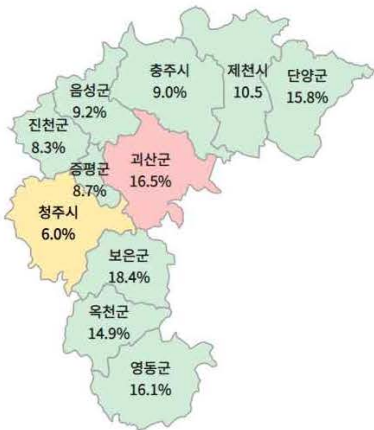
제2장

고령 1인 가구 특징

1 충청북도 시군 독거노인인구 현황

□ 전체 일반가구 중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구의 비율인 독거노인가구비율(2018)은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관계 측면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 측정에 중요한 지표임.

[그림10] 독거노인가구비율(2018)



- 충청북도 3개시 지역 중 청주시 독거노인인구는 2016년 대비 2018년 26,389명으로 15.1% 증가 하였으며, 충주시는 11.6%, 제천시는 27.9% 증가함.
- 충청북도 8개군 지역 중 보은군 독거노인인구 증가율을 보면 2016년 대비 2018년 -8.3%로 괴산군(-12.5%)과 함께 감소하였고, 옥천군 10.3%, 영동군 6.3% 증평군 14.6% 진천군 87.0% 음성군 11.9% 단양군은 8.5% 각각 증가함.

[표9] 충청북도 시군별 독거노인인구 현황(2016~2018)

(단위: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2016년	22,923	9,828	6,965	3,172	3,876	4,344	1,575	1,950	4,397	4,694	2,498
2017년	24,705	11,784	9,848	3,273	4,034	4,228	1,619	1,959	3,761	4,955	2,641
2018년	26,389	10,964	8,911	2,908	4,274	4,616	1,805	3,647	3,848	5,252	2,710

[그림11] 충청북도 시군별 독거노인인구 현황(2016~2018)



자료: 통계청, 2018년 충청북도기본통계, 독거노인현황

2 충청북도 독거노인의 경제 수준 현황

- 충청북도 독거노인의 경제 수준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인구는 2017년 기준 72,807명이며, 그 중 저소득 독거노인³⁾은 5,973명(8.2%), 수급자 독거노인은 10,935명(15.0%)으로 나타남. 일반 독거노인은 55,899명으로 76.8% 임.
- 2015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충북 전체 독거노인은 59,838명에서 72,807명으로 21.7%로 증가하였음. 전체 독거노인인구가 증가하였지만, 2017년 기준 저소득자 비중이 8.2%로 2015년에 비해 0.6% 감소하였고, 수급권자의 경우 2017년 기준 15.0%로 2015년보다 1.8% 감소함.

[그림12] 충청북도 독거노인의 경제 수준 현황(2017)



3) 저소득노인은 차상위 계층을 말함.

*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

※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7인가구: 7,389,715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말하는데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뜻함.

③ 충청북도 고령 1인 가구 주거형태

- 65세이상 1인 가구 주거형태 비율을 살펴보면, 충청북도는 단독주택 61.5%, 아파트 30.2%, 연립주택 2.6%, 다세대주택 2.1%, 비거주용주택 1.2%, 주택이외거처 2.5%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은 단독주택 52.5%, 아파트 33.5%, 연립주택 2.2%, 다세대주택은 7.5%, 비거주용주택은 1.2%, 주택이외거처는 3.1%임.
- 충북과 전국의 65세이상 1인 가구 주거형태 비율을 비교했을 때 충북은 2018년 기준 단독주택은 9.0% 높고 아파트는 3.3% 낮으며, 연립주택은 0.4% 높고 다세대주택은 5.4% 낮음. 비거주용주택은 동일하며 주택이외거처는 0.6% 낮게 나타남.

[표10] 전국 고령 1인 가구 주거형태 비율(2018)

(단위 :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주택	주택이외거처
전국1인가구/ 전국65세이상1인가구	47.5	29.9	1.7	9.2	2.1	9.9
	52.5	33.5	2.2	7.5	1.2	3.1
충북1인가구/ 충북65세이상1인가구	56.3	32.4	1.7	2.2	1.5	5.8
	61.5	30.2	2.6	2.1	1.2	2.5

[그림13] 전국 고령 1인 가구 주거형태 비율(2018)



자료: 통계청, 2019년 인구총조사

4 충청북도 국민연금수급 현황

- 충청북도 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기준 총 161,416명이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24,856명, 2016년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는 10.8% 증가 하였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1.8% 증가함.
- 충청북도 내 국민연금 지급금액은 2018년 기준 총 6억 5,159만 1천 원이며,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5억 3,653만으로, 2016년 대비 국민연금 지급금액은 24.0% 증가 하였고,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25.3% 증가함.

[표11] 국민연금 급여 지급현황 (2016~2018)

충북	2016		2017		2018	
	수급자수(명)	금액(천 원)	수급자수(명)	금액(천 원)	수급자수(명)	금액(천 원)
계	145,691	525,578,436	157,633	592,712,191	161,416	651,591,053
노령연금	111,681	428,254,026	121,766	488,530,373	124,856	536,530,613

- 대한민국의 법정정년은 60세 이며,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받는 시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년 이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늦춰지고 있음.
- 1957~1960년생은 60세에 퇴직한다고 하면, 2년 뒤인 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1961~1964년생의 경우 60세에 퇴직하면 3년 뒤인 63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됨. 1965~1968년생은 60세에 퇴직하면 4년 뒤인 64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1969년 이후로는 5년 뒤인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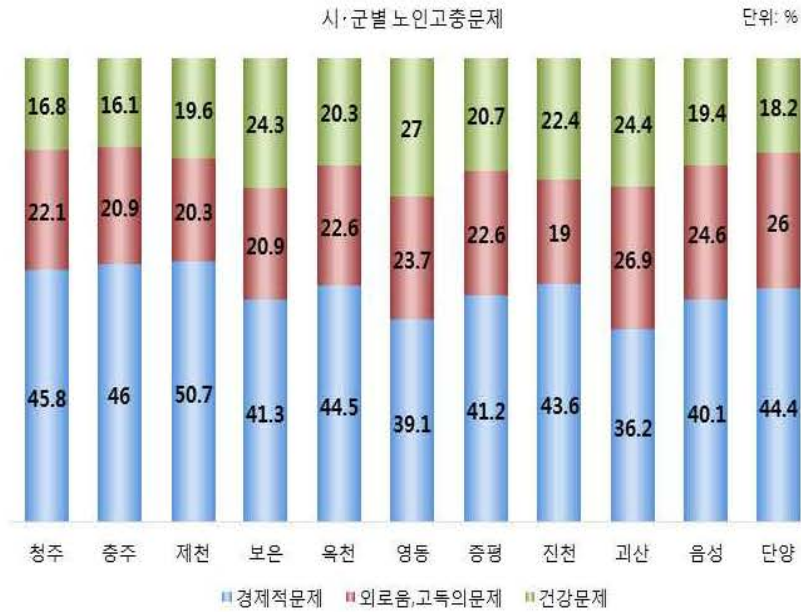
[그림 14] 국민연금 수급시기(2018)



5 충청북도 노인 고충문제

-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노인 고충문제' 2018년 충청북도사회지표에 따르면, 1순위는 '경제적문제'(45.8%), 2순위는 '외로움,고독의문제'(22.1%), 3순위는 '건강문제'(16.8%)로 나타났으며, 2016년 '노인 고충문제' 와 비교했을때 '외로움, 고독의문제'는 4% 대폭 증가함.

[그림15] 시군별 노인 고충문제(2018)



[표12] 시군별 노인 고충문제(2018)

	사례수	경제적 문제	외로움, 고독의 문제	건강문제
충북	20,574	45.8	22.1	16.8
청주	3,012	47.3	22.1	13.8
충주	2,082	46.0	20.9	16.1
제천	2,181	50.7	20.3	19.6
보은	1,709	41.3	20.9	24.3
옥천	1,666	44.5	22.6	20.3
영동	1,509	39.1	23.7	27.0
증평	1,715	41.2	22.6	20.7
진천	1,742	43.6	19.0	22.4
괴산	1,627	36.2	26.9	24.4
음성	1,670	40.1	24.6	19.4
단양	1,661	44.4	26.0	18.2

자료: 2018년 충북사회지표

2020년 충청북도 1인 가구 조사연구

자료정리 I 연구진

발행일 I 2020년 3월 12일

발행인 I 이화정

연구기관 I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판권소유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 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가 불가능함.